

■ 불법광고 판치는 도심

충장로, 상무지구, 전남대 후문, 용봉지구 등 광주 시내 전체가 불법·유란 광고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광주시와 자치구 등 지자체들이 노인 정비단까지 모집해 불법 광고물을 치우고 있으나, 숨

방망이 처벌 탓인지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올 가을 전국체전을 앞둔 '문화수도 광주'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광주 시내 불법 광고물의 현장과 실태, 문제점을 4차례에 나눠 신는다.

뿌리고... 붙이고... 거리는 '누더기'

1 충장로·구시청 사거리

단속해도 "벌금 내면 돼" 막무가내 살포
전단지만 하루 손수레 두대 분량 수거

지난 7일 밤 9시경 광주시 동구 충장로 2가. 검은색 양복을 입은 B업소의 종업원 4~5명이 '색시 부비걸 경연대회'를 홍보하는 불법광고물을 행인들에게 나눠주고 있었다.

이들은 10여분 후에는 광고 전단지를 나눠주는 게 귀찮았는지 아예 수심장을 한꺼번에 길거리에 뿌려댔다.

광주 우체국 주변, 구시청 사거리 등도 사정은 비슷했다. I업소 종업원들이 홍보 전단지를 나눠주자, S업소도 경쟁적으로 홍보물을 길거리 이곳저곳에 던지다시피 했다.

불법광고물 홍수에는 인근의 휴대전화 대리점들도 한 몫했다. 곳곳에 테이프 등을 이용해 합인행사를 알리는 판촉전단을 거리 바닥에 붙여 놔 도심이 누더기로 만들어 놓았다.

광주 동구청에 따르면 이렇게 하루에 뿌려지는 전단지 등 각종 불법광고물은 2대 분량이 넘는다.

동구는 하루 평균 6~7명의 거리미화원을 동원해 청소하지만 때와 장소

를 구별하지 않는 불법광고물을 다 치워내기에는 일손이 달린다.

동구 관계자는 "적발될 경우 고작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돈을 내면 그만이라는 식"이라며 "사구의 D업소는 동구청을 비롯해 광주지역 전 구청으로 부터 고발됐지만 단일 사건으로 처리돼 고작 200여만원의 벌금만 낸 뒤 다시 뿌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태료가 부과된 뒤에도 이를 체납한 채 다시 살포하는 업체도 있다. 광주 서구 상무 나이트는 지난해 11월 적발돼 부과된 300만원을, 북구 운암동 프린스 나이트는 지난해 2005년 11월 부과된 17만원을 9일 현재까지 각각 체납하고 있다.

또 동구 대인동 서울나이트(현 한국관·2005년 6월)도 125만원의 과태료를 내지 않고 있다. 동구청 직원 6명과 공익요원 3명은

지난 1월부터 3개월 동안 도심권에서 단속을 펼치 현수막 4천680개, 입간판 624개, 벽보 6만2천386장, 전단 6만2천449장, 풍선 광고물 등 기타 237개를 적발했다.

지난달 14일 출법한 노인정비반(55~60세 노인 70명)도 3월31일 현재 벽보 7천132장, 전단 4천501장을 전신주 등 길거리 곳곳에서 떼어냈다.

동구는 오는 6월까지 29억5천여만 원을 들여 대리석을 깔고, 조명등을 설치하는 등 충장로를 꾸미고 낭만이 있는 특화거리로 조성할 예정이지만 불법광고물 때문에 빛을 바랄 수도 있다.

'충장로상가반영회' 이명준(57)회장은 "불법광고물 때문에 비가 오면 하수구가 막혀 충장로 전체가 물바다가 된다"며 "더욱 처벌을 강화하거나 영업정지를 내는 등의 강력한 조례를 제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지난 7일 밤 9시경 광주시 동구 충장로 일대는 인근 업소의 종업원들이 길거리에 뿌려댄 불법광고물로 순식간에 누더기로 변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도서관 주간 행사>

행사명	일시	내용	장소
책속의 향기를 찾아서- <td>12~18일</td> <td>읽었던 책 속의 명언·명문장 찾기</td> <td></td>	12~18일	읽었던 책 속의 명언·명문장 찾기	
이별의 함께 추억의 사진촬영	14~15일	이별의 동행한 자녀 축적 촬영	
미국 외교관과의 대화	18일 오후4시	미국 외교관이 본 한국의 변화	무등도서관
저지와의 만남	12일 오전10시	책속의 흥·저지 이야기 이현재 동구 향토연구소장	
책과 영화의 만남	12~15일 오후2시	일찍이 소설인 영화 상영	
독서교실 작품전시회	12~18일	독서교실 참가학생 작품 전시	
현지방문 1일 도서관 보살	13일 오후2시	현 책 1권을 새 책으로 교환	포안동 주은모이아트
술 체험 문화산책	14일 오후3시	사적경원·양원동 일일 역사 탐방	
사랑송 발표회	14일 오후1시	전문가 및 어린이 사랑송	
동화구연 경연대회	18일 오후3시	유아·초등 저학년 또는 학부모 대상	시정도서관
애니메이션 특선 영화 감상	15일 오후3시	부모와 함께 민화 영화 감상	
한국화 작품 전시회	12~27일	산수화, 사군자 등 작품 전시	산수도서관
도란도란 도서관 나눔이	13일	도서관 권역 및 이용법 지도	
책이 우리아이 마음을 열어줘	11일 오전10시	책 읽기 가르치는 법 강의	산수도서관
살바엔 키즈 영화관	12~15일 오후2시	독서미인인 위한 영화 상영	
이런책 어때요?	12~18일	독서교실 학생들의 추천도서 전시	
문화학교 작품전시회	12~18일	서양화·한지공예 수험생 작품전시	

행사명	일시	내용	장소
2007년 권장도서 목록 배부	12~18일	한누리 독서문화 운동본부 선정 추천도서 500권	서구 문화센터
푸름이 아빤 최우수 초장강연	17일 오전10시	선착순 200명에게 강연테이프 선물	
입찰도서 교환전	14일 오전11시	2003년 이후 출간된 도서 1권을 새 책으로 교환	마재 근린공원
독후회 그리기 대회	14일 오전11시	유아 및 초등학생 대상 접수비 1천원, 현장 접수 가능	

책 갈피속에 봄 향기 가득

시립도서관 등 도서관 주간 책읽기 행사 다채

제43회 도서관 주간(12~18일)을 맞아 광주시립도서관 등이 시민들의 책읽기를 독려하기 위해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다.<표>
◇광주시립도서관=무등도서관은 좋은 문장이나 명언을 찾아 오면 시상하는 '책 속의 향기를 찾아서' (12~18일)를 비롯한 '아빠와 함께 추억의 사진촬영' (14~15일), '미국 외교관과의 대화' (18일) 등을 준비했다. 사직도서관은 '현지방문 1일 도서기증보상' (13일), 사직공원과 양림동 일대를 산책하며 사적을 탐방하는 '술 체험 및 문화산책' (14일), '한국화교실 작품전시회' (12~27일) 등을 개최한다. 산수도서관에서는 '파열호 잡지 무료 배부' (12~13일), 시민들의 추천도서를 전시하는 '이런 책 어때요?' (12~18일) 등을 연다. 문의 062-262-1623.
◇서구 공공도서관=광주서구 문화센터 내 공공도서관은 14일 마재 근린공원에서 2003년 이후 출판된 도서 1권을 신간도서와 교환해주는 '알뜰도서 교환전'과 '독후회 그리기 대회' 등을 개최한다. 또 한누리 독서문화 운동본부 선정 2007년 권장도서 목록을 500명에게 선착순 배부 (12~18일)하며, 서구문화센터 1층 로비에서는 12~14일까지 북아트 작품 전시회가 열린다. 문의 062-654-4306.
◇어린이도서관=광주지회회는 11일 산수도서관 5층 시청각실에서 광주지역 학부모를 위한 제10회 독서강연회를 마련했다. 인천어린이도서관협의회 박소희 회장이 '즐거움 책읽기 행복 한 우리 아이'를 주제로 강연을 펼친다. 신입회원을 대상으로 12일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해 18~19일, 25~26일, 네 차례의 교육을 실시한다. 독서강연회 참가자는 무료이며, 신입회원은 2만원의 교육비를 지참해야 한다. 문의 062-417-8328.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광주 지역전략산업
기획에서 구축까지

優秀 체납 차량 꼼짝마!

자동인식시스템 도입
걸리면 번호판 압수

광주시에 광산업 등 지역전략산업이 각종 평가에서 잇따라 좋은 결과를 내고 있다.

광주시는 9일 "대표적 지역전략산업인 디지털컨텐츠 부품센터 구축 사업 등이 산업자원부의 올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A1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평가는 지역의 전략산업으로 선정된 각 사업의 기획에서 기반 구축·해의마케팅·기술 지원·인력양성 등 5개 분야에 대해 사업계획 및 성과 등을 서류와 면접·실사 등을 거쳐 평가했다.

광주지역전략산업기획단은 운영 분야에서 A1 평가를 받았으며, 광주통신 부품 시제품 생산지원 사업과 광산업 해의마케팅지원사업은 각각 A2 등급을 받았다. 반도체 광원 시험생산지

원·광산업 기술지원 등 총출연 9개 사업 모두가 B급 이상 평가를 받았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부상으로 12억원의 사업비를 받았다.

시는 앞서 지역의 간판 산업인 광산업을 주력산업으로 선정, 국내 유일의 광산업 클러스터 구축 등으로 지난해 지역산업정책 대상에 수상했다. 광산업은 99년 말 47곳에서 지난해 말 268곳으로 비약적으로 증가했으며 종사자도 1천900여명에서 6천600여명으로 급증했다.

또 지역혁신특성화 사업(RIS)으로 추진되고 있는 금형산업의 성공적 추진으로 지난해 지역혁신박람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광주시에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체납차량을 찾는 '자동차번호판 자동인식시스템'을 도입해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광주시는 5일 자치구 세무 관련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갖고 최첨단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도입해 세금 체납 운전자들의 차량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지방세 징수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 시스템은 주차지역에서 시간당 1천여대의 차량 번호판을 인식해 체납 차량 리스트와 대조하고 주행 차량의 번호판도 식별, 영치증을 현장에서 발급할 수 있다. 시는 상반기 중에 4천만원의 예산

을 들여, 자동차번호판 자동인식시스템을 구입해 일선 자치구에 순회 배치한다.

시는 또 5월부터 7월까지를 지방세 특별징수기간으로 설정해 압류 부동산 공매·급여 압류 등 체납액 징수를 강화한다. 시는 단계적으로 관해사업의 제한·출급금지·형사고발·명단공개 등 법이 허용한 모든 조치를 동원할 예정이다.

3월 말 현재 광주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824억원으로 이 가운데 42%인 353억원이 자동차세 체납액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자동차번호판 자동인식시스템을 활용하면 공무원들의 도보 적발에 따른 비능률을 없애고 적은 단속 인원만으로도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기능대회 개막
광주공고 등 11~16일

광주시기능경기위원회(위원장 박광태 광주시장)가 오는 11~16일 광주공고 등 10개 경기장에서 '2007년도 광주시 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한다. 개회식은 11일 오전 10시 30분 광주공고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에는 CNC선반 등 37개 직종에 391명의 선수가 참가해 평소 갖고 닦은 기술을 펼친다.

입상자에게 시상식은 오는 16일 오전 11시 광주그랑시아웨딩타워에서 열린다. 입상자들은 오는 9월 충남에서 열리는 제42회 전국기능경기대회 광주시 대표로 출전한다. /황태중기자 hwangtae@

황금돼지해 어떻게 운(運)을 받을 것인가?!

◆ 희망을 심어주는 삼중 큰스님 강연회 ◆

대충해도 되는 사람이 있고 해도해도 안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삼중큰스님 강연회에 오시면 길이 있고 희망이 보입니다.

참석하시는 모든 분께 영험한 황금돼지부(지갑소지용)를 드립니다. 못받아 가신 분은 이웃분들과 함께 오셔서 꼭 받아가십시오!

광시 4월 12일(목) [음력 2월 25일] ※3회중 편리한 시간에 참석하십시오.
주장소 ①회:오전10시30분 ②회:오후2시30분 ③회:저녁7시
주소 광주 전남대 동창회관 6층 강당 (광주역 후문 안보회관 증흥삼거리 사이, S요일 주유소 옆) ◆참기비 무료◆

■삼중스님 약력: 해인사 입산, 경북 용연사·화양사 주지, 이종(귀무덤) 비종(코무덤) 한국봉행위원장, '영광스님 인물' 대통령표창, 애국동포 김희로 석방운동 추진위원장, 대한적십자 박애상(금장), 국민훈장 목련장,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자비사 주지
■삼중스님 저서: 가피(가피를 입은 사람들의 영험한 이야기), 빈몸으로 왔다 빈몸으로 가는 인생, 알기쉬운 금강경 강설 30여편, 사행수 편지 1·2, 결랑에서 배운 인생 사행수, 어머니들이 부른 통곡의 노래 1·2·3외 다수

알고 대처하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삼중원을 도와주신 감사의 보답으로 재물, 사업, 혼사, 이사, 매매, 취직, 승진, 시험, 건강운 등 종합 운세를 전문분야별 유명한 스님 세분께서 무료로 봐 드립니다.



구지사 운봉스님



묘광사 효산스님



자비사 대봉스님

많은 분들이 강연회에 오시는 연유가 있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은 큰 복입니다.

성명	성별	생년월일(음)	생시	주소

※이웃분들과 함께 오세요. 이 용지가 없는 분들은 다른 종이에 운세보실 분(2명)의 생년월일을 정확히 적어오시면 됩니다.



스님이 부르는 슬픈 사모곡 "사랑수의 눈물을 따라 어머니의 사랑을 따라" (삼중스님 신간 전국 발매중 - 스님출판사 -)

문의:삼중원 080-231-0222